

中系列別 出題와 採點

張 彥 孝

(國民大 教育學科)

I. 序 論

1960年代에 들어 客觀式의 四枚選多型試驗이 이전의 主觀式 論述考查를 배제하고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되었다. 이것은 주관식 검사보다 객관식 검사가 검사의 妥當度, 信賴度와 검사실시의 效率性이 더욱 높은 것에 기인하였다.

그러나 객관식 검사가 오래도록 大學入試方法으로 지속되어 오는 과정에서 高校教育은 고교 교육의 目標를 성취하는 과정에 강조를 두기보다는 오히려 출제 가능한 4지선다형 문제에서 정답을 선정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는 데 역점을 두는 경향이 강하였다. 때문에 고교교육은 학생들의 高等精神機能인 批判力, 分析力, 綜合力, 評價力, 問題解決力 등을 신장시키는 교육 방법보다는 단순한 지식의 암기를 위주로 하는 강의식 교육방법을 강조하게 되었다. 이 같은 고교교육의 문제점을 조금이나마 改善하고 대학 입시에서 大學의 自律性을 최소한이나마 보장하기 위하여 대학이 자율적으로 논술고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논술고사는 학생들이 답을 스스로 構成하여 제시하기 때문에 객관식 검사보다는 학생들의 고등정신기능을 비교적 타당하게 측정할 수 있다. 그러나 출제, 채점상의 어려움 때문에 검사의

타당성과 신뢰성은 아주 낮아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때문에 논술고사에서 예상되는 이 같은 문제점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매력이 검사실시 이전에 주어져야 된다.

본문에서는 이 같은 검사실시상의 문제점 등에 관한 이론적 논의보다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코자 한다. 특히 본문에서는 中系列別로 논술고사를 실시할 때의 出題, 採點方法 등에 관하여 논의한다.

논술고사를 실시할 때 大人 受驗生의 單位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大系列 또는 中系列別 논술고사 방법이 결정된다. 즉 수험생을 크게 自然系, 人文系, 藝體能系로 나누어 考查를 실시하면 大系列別 考查가 되고, 이를 다시 세분화하여 自然系를 다시 理學系, 工學系, 農學系, 醫學系로, 人文系를 人文系, 社會系, 法政系, 經商系로, 또한 藝體能系를 美術系, 音樂系, 體育系로 구분하면 中系列이 된다.

수험생을 지원한 專攻系列에 따라 세분화하여 논술고사를 실시하는 것은 첫째, 수험생들이 지원한 전공제일에 따라 出題함으로써 가능한 한 수험생들의 흥미와 특성에 알맞은 소재와 내용으로 문제를 구성하자는 것이고, 둘째 採點도 비교적 작은 단위를 대상으로 하여 검사점수의 內的 一貫性을 높이는 것이며, 셋째 비교적 작은 단위로 검사를 실시하여 검사장소, 검사시

의 감독자의 수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검사 실시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데 있다.

그러나 제 2, 3 지방을 中系列을 넘어서 大系列內에서 지원이 가능할 때, 제 2, 제 3 지방의 수험생을 어떻게 査定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 때문에 수험생의 단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반드시 제 2, 3 지방 문제와 연계지위 결정하여야 된다.

중계열별로 논술고사를 실시할 때에도 그 구체적인 방안은 본질적으로 대계열별 논술고사와는 다르지 않다. 다만 중계열로 논술고사를 실시할 때 그 이점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출제, 채점, 검사실시의 세 영역으로 나누어 제시한다.

II. 出題의 具體的 方案

1. 出題委員의 構成과 出題의 過程

중계열별로 논술고사를 실시하는 것은 수험생들이 지원한 전공계열에 따라 서로 다른 문제를 출제함으로써 수험생들의 특성과 흥미를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고려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출제는 각 중계열별로 2~3인의 出題委員이 선출되어 각 중계열의 특성을 고려하여 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사전에 수립된 출제의 기본 방향에 따라 각기 출제하였다 하여도 출제의 형식 또는 소재의 구체성 등이 동일 대학내에서도 다를 수 있다. 같은 대학내에서 출제에 일관성을 갖기 위해서는 비교적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 출제된 문제를 다듬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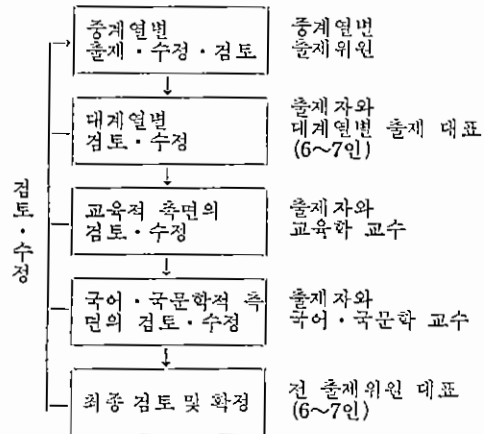
일차적으로 大系列別로 小委員會를 구성하여 각 中系列別로 출제의 기본 방향에 따라 문제가 출제되었으며, 그 문제의 형식과 소재는 서로 일관성을 갖고 있는가가 검토되고 수정되어야 된다.

이렇게 일차적으로 정리된 문제는 교육학(특히, 교육평가나 교육과정)을 전공한 교수와 함께 그 문제가 첫째, 수험생의 고차적 정신기능을 측정할 수 있는 문제인가? 둘째, 그 문제에 대한 답이 확실히 그 우열을 가릴 수 있는 문제인가? 셋째, 바로 측정하고자 하는 목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험생이 어떻게 답안을 작성하여야 되는지를 가능한 한 분명히 제시

한 문제인가? 등을 검토하여야 된다.

또한 이때 국어학을 전공한 교수와 국문학을 전공한 교수에 의하여, 첫째 문장이 간단하고 명료하게 제시되고 문법적으로 틀린 점이 없는 문제인가? 둘째, 주어진 시간에 주어진 양을 답할 수 있는 문제인가? 즉 충분한 내용으로 다양하게 문답할 수 있는 문제인가? 등이 검토되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된 문제는 다시 모든 출제위원으로 구성된 전체회의에서 문제의 형식, 소재의 일관성, 문제의 교육적 의의·반응 양태·진술 등 모든 측면에서 재검토되고 최종적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2. 논술고사 문제의 내용 선정

논술고사는 원칙적으로 사고력, 문제해결력과 같은 고등정신기능을 측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때문에 문제의 내용 소재는 脫教科的 또는 汎教科的인 것으로 선택하여야 된다. 그러나 問題의 素材를 너무 일반적인 것으로 선택하다 보면 論述式 考査의 性格보다는 일반 作文의 性格을 띠기 쉽다. 즉 모든 응시자들에게, 공평한 소재를 선택하려는 의도에서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인 소재를 선정하면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답보다는, 즉 논리적 사고보다는 문장의 표현력과 문장의 구성과 같은 측면에 강조를 두어 평정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 하여 문제의 소재와 내용을 특정한 교과에서 선정하여 출제하면 특정한 학생만이 잘 알고 있는 문제가 되어 그 학생들에게만 유리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논술고사 문제의 소재와 내용은 수험대상 학생 모두가 잘 이해할 수 있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들이 관심과 흥미를 갖는 문제이면서도 학생들의 사고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여야 된다.

중계열에 따라 출제함으로써 비교적 수험생의 흥미와 관심에 알맞는 문제이면서 그들의 사고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할 수 있다. 자연계 모든 학생들에게 알맞는 한 문제를 출제하는 것보다는 중계열별로 문제를 다양하게 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이과계 지원생에게는 기초과학에 관련된 문제, 공학계에는 응용과학에 관련된 문제, 농학계는 농업에 관련된 문제를, 의학계는 의학에 관한 문제를 출제하는 것이 수험생의 흥미와 관심뿐 아니라 지원학과의 특성을 살리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3. 問項의 構成

문항의 구성은 크게 單獨課題型과 資料提示型으로 區分된다. 단독과제형은 “空氣와 人間生活과의 關係에 對하여 論하라”와 같이 어떤 特定領域에 對하여 학생들이 자유스럽게 반응하는 문제인데 반하여 자료제시형은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여 주고 이를 근거로 하여 어떤 합리적인 결론을 끌어내게 하는 문제이다.

대학입시와 같이 무엇보다도 客觀的이고 信賴로운 評定이 요구되는 考査에서는 학생들의 反應이 너무 다양하게 나와 우열을 評定하기 어려운 문제는 加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단독과제형은 문제의 범위를 축소시켜 주더라도 일반적으로 그 반응이 다양하게 제시된다. 그러므로 중계열별 출제에서는 관련된 영역에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그 자료를 근거로 어떤 결론을 유추하거나, 그 자료를 분석·비판·종합하는 문제를 출제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사려된다.

4. 問題數 및 反應時間

문제수는 반응시간 및 고사의 목적과 연계지워 결정하여야 된다. 학생들의 흥미와 특성을 고려한다면 각 계열별로 2~3 문제를 출제하여 학생들이 문제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 때에는 평정

및 사정에서 어려움을 갖게 될 가능성이 많다. 대학입시와 같이 검사점수의 내적 일관성이 강조되는 고사에서는 한 문제만을 출제하여 그 계열의 모든 학생들이 같은 문제에 반응토록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반응시간 및 반응량은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다. 그러나 고등학생들의 사고능력을 고려할 때 1문제에 대한 반응량이 1000자 이상을 넘지 않은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최소 서론부분 200자, 본론부분 300~400자, 결론부분 100자로 볼 때 최소 600자 이상은 되어야 할 것이다.

반응량을 200자 원고지 4매로 볼 때 최소한 구상시간 20~30분, 원고 작성시간을 60분, 검토·수정을 10분 정도로 볼 때 최소 90~100분 정도 걸려야 된다고 판단된다.

Ⅲ. 評定方法

1. 採點委員의 構成과 採點單位

제2, 제3 지망을 허용하는 범위에서 가능한 採點單位를 크게 하여 적은 인원이 일관성 있게 모든 학생들의 반응을 채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채점자 1인이 한 학생의 답안지를 읽고 채점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 10분으로 잡고 채점기일을 5일로 잡는다면, 5일 동안 1인이 채점할 수 있는 답안지의 수는 산술적으로 240명이 된다. 그러므로 적어도 같은 학과내에서 지원자의 수가 300명을 초과하지 않을 때에는 학과내 평정의 일관성을 기하기 위하여서는 학과를 채점단위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 단위의 학생들의 답안지를 채점할 때 채점자의 주관적 편견을 제거하기 위해서 적어도 3인 이상이 채점하여 이들 점수의 평균을 구하는 것이 요구된다.

채점위원은 각 과별 전공교수 2인 이상이 채점위원이 되어 채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논술고사는 문장의 구성, 문장의 표현력 등도 아울러 평정되어야 하므로 국어·국문학을 전공한 교수가 각 채점위원단에 1인 이상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어·국문학을 전공한 교수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할 때는 어문학을 전공한 교수에 의해 국어·국문학적인 입장에서

바르게 평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採點方法

채점방법에는 評價基準에 따라 絶對評價方法과 相對評價方法이 있으며, 評定方法에 따라 分析的方法과 綜合的方法이 있다.

分析的方法은 採點을 要素別로 분석하여 채점한 다음 종합하는 방법이며, 종합적 방법은 답안지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평정하는 방법이다. 입학시험과 같이 채점의 신뢰성이 강조될 때는 일반적으로 분석적 방법을 선택하게 된다. 분석적 방법은 주관식 고사에 채점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그러나 실제 채점과정에서는 답안지들이 각 요소별로는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채점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므로 입시와 같은 고사에서는 채점의 기준은 요소별로 제시하되 채점은 종합적으로 하는 것을 권하고 싶다. 즉 채점자들이 채점의 기준을 요소별로 숙지하고 각 요소의 특징을 감안하여 전체적으로 평정하는 방법이다.

또한 채점할 때 수험자들의 상대적 위치를 고려하여 A,B,C 등의 등급으로 평정하는 상대적 평정방법과 채점자의 판단에 따라 성적을 10점 만점에 7,8점 등으로 매기는 절대적 평정방법이 있다. 절대적 평정방법은 평정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하여 평정되기 때문에 평정자의 가치판단에 따라 전체적으로 후한 점수를 주는 경우 또는 박한 점수를 주는 경우가 있으며, 또한 채점된 점수간의 범위가 큰 평정자와 범위가 작은 평정자 등이 있을 수 있어 검사점수의 객관성을 기하기 어렵다. 반면 상대적 평정방법은 근본적으로 분류에 의한 방법이기 때문에 평정방법이 복잡하여진다. 이때 분류의 단계를 적게 하면 분류가 신뢰롭고 분류가 용이하여지나 점수의 차가 적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처음 실시되는 논술고사에서는 이 같은 문제점을 감안하여 절대적 평정방법을 택하되 평정자간에 따른 評定の 誤謬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 점수의 분포를 상대적으로 미리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여겨진다. 이때 상대적 분류의 단계는 5단계 정도가 바람직하다.

3. 採點回數

한 학생의 답안지를 3인 이상의 채점위원이 채점하고 평정할 때에도 1인의 채점위원이 단 한번 채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많은 연구에서 처음 평정할 때와 마지막에 평정할 때 일반적으로 평정자의 평정기준이 달라진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평정자의 심신상태에 따라서도 평정이 달라진다고 보고하고 있다.

입시와 같은 중요한 고사에서는 한 답안지를 한 채점자가 두 번 이상 채점하여 채점 결과의 차이가 클 때는 다시 채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채점상의 어려움 때문에 이것이 어려울 때는 최소한 채점의 결과를 제검토하고 수정할 수 있는 과정이 채점자에게 부여되어야 한다.

4. 採點委員에 대한 事前教育

주관식 논술고사의 채점은 채점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정도가 크기 때문에 채점의 恣當性, 客觀性, 信賴性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전에 채점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한 시험 답안지를 여러 명이 채점하게 한 뒤 채점의 결과를 서로 토의하고 문제점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사전에 협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 또한 출제의 의도, 채점의 요소와 기준, 평정방법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도 반드시 사전에 채점자들에게 숙지되어야 한다.

IV. 論述考查의 實施

중계열별 논술고사는 검사 실시상의 이점을 갖고 있다. 입학시험의 성격 때문에 고사를 동일 시간에 많은 감독교사를 배치하여 실시하여야 된다. 그러나 중계열별로 출제하였을 때는 비교적 단과대학별로 다른 시간에 고사를 실시함으로써 고사장소와 감독교수의 문제를 용이하게 해결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중계열별 논술고사의 실시 방법은 근본적으로 대계열별 논술고사 실시방법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수험 대상자의 단위를 줄여 수험자의 흥미와 특성에 맞는 문제로 출제하고 검사실시에서 효율성을 기하자는 것이다. *